

한·중 신문 보도 프레임 연구 - 민족주의 정서를 중심으로

이광수*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문의 프레이밍에 민족주의 정서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반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보도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표출된 사례였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충돌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분석했다.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국의 환구시보는 모두 형식적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갈등프레임, 대책프레임, 국가위신프레임, 도덕성프레임에서 각기 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갈등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서 민족주의 정서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프레이밍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다. 언론의 프레이밍에 따라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한 보도는 흔히 민족감정을 증폭시키고,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언론, 프레임 효과, 민족주의 정서, 반한(反韓)정서, 반한(反韓)보도

*이광수 (E-mail: muzili712@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중국인민대학 현직: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9-362-B00011).

논문접수일 : 2016년 7월 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22일

An Analysis of the News Framing of Korean and Chinese Media, Focusing on Nationalistic Emotions

Lee, Kwang-su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nationalistic emotions in the framing of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by comparing coverage by Korea's *Chosun Ilbo* and China's *Global Times* of an issue that could reflect chauvinistic attitudes in the two countries' media. Specifically, it probes the coverage of skirmishes during the torch relay within Korea prior to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The *Chosun Ilbo* and *Global Times* both formally emphasize objective news reporting, but each paper expressed nationalistic emotions in framing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conflict, countermeasures, national prestige, and morality. This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shows the nationalistic perspective at work when trying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same case. The framing effect for eliciting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local base is obvious. Both papers framed the issue to shape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ir own country.

[Keywords] *Media, Frame Effect, Nationalism Emotions, Anti-Korea Emotions, Anti-Korea Coverage*

I. 서론

1. 문제제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진행된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성화봉송을 방해하려는 티벳 독립 지지자들과 성화 봉송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던 중국유학생들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 다수의 중국유학생과 소수의 성화 봉송 반대시위자들을 동정한 한국의 군중들과 충돌로 격화하면서 이른바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은 중국 언론에 ‘중국유학생은 애국학생으로, 반대시위자들은 폭력방해꾼’ 식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을 사전에 무단으로 방영함으로써 베이징 올림픽의 축제분위기를 해쳤다는 인식과 중복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 댓글들이 발생하고, 중국의 언론보도도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이 확산되는 등 이른바 반한(反韓)정서를 반영한 반한(反韓)보도가 연이어 나타났다.¹⁾

실제로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

의 올림픽을 망치려 한다’며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국의 상대편 국가를 응원하는 등 반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반일(反日) 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소후닷컴(sohu.com)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국의 상대팀을 응원하자’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

중국의 한류열풍에 대해서 한·중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는 상이한 견해와 시각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주관적으로 중국 내 한류 현상을 일정정도 확대하거나 혹은 과장해 보도하고, 한국학자들은 한류가 이미 중국사회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중국 언론은 한류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보도자세로 임하며 중국학자들도 한류가 문화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며, 일부 민족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쪽에서는 한국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혐한류(嫌韓流)’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혐한류, 반한류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류가 자국 문화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김범송 2008,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뉴스(News)를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 뉴스는 뉴스 제작자들의 ‘선택(Selection)’과 ‘배제

1) 반한정서(反韓情緒)는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한 불만, 불신, 반감, 멸시 감정이 형성되는 분위기 혹은 언행을 의미한다. 본래 반한정서는 일본 우익에 의해 발간된 <만화혐한류(漫画嫌韓流)>에 의해 “한국을 미워한다.”는 의미의 ‘혐한’이라는 용어가 유행되면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좋아하고 숭배한다는 의미를 지닌 합한(哈韓), 숭한(崇韓) 등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가 언론에 나타났는데, 한류에 대한 비판 시각이 나타나면서 한국을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의미를 지닌 염한(厭韓), 혐한(嫌韓)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 “올림픽으로 가속화 된 ‘혐한류 VS 혐중류.’ 『아시아경제』(온라인), 2008년 8월 24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82407161715584>(검색일: 2014.4.8.)

(Exclusion)'를 통해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뉴스를 가공하는 미디어(Media)의 특정한 시각 또는 의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뉴스 제작자의 보이지 않는 분석틀이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프레임(Frame)이라 명명하는데, 프레임은 사회현상을 미디어가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독자의 이해와 수용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틀짓기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한다. 현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프레임은 "수용자가 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양승목 2008, 219)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은 미디어의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증폭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의 반한정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주의 정서가 한·중 양국 언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반한정서가 증폭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에 대한 한·중 양국의 언론보도를 연구대상으로 형식적, 내용적 프레임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2. 선행연구 검토

중국 언론의 한국 혹은 한류 관련 보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는 1992년 수교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비교연구, 수교 이후의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 수교 전후에 발표된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하여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기사량과 보도태도 등을 비교 분석했다. 수교 이후에는 신문 이외에 방송으로 영역이 확대되

고, 보도 분야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긍정적 보도태도로 이어졌다.³⁾

한류와 반한정서와 관련된 언론보도 프레임연구는 주요하게 한류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반한정서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우선 양카이·정정주(2015)의 글은 한류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미디어 보도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부활시기라고 평가받는 2009-2014년 기간에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신민만보 등 중국의 세 군데 주요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류관련 보도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사 구성방식도 사건이나 인물 정보의 제공에 치중하는 일화중심적 기사보다 한류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대안을 제공하는 서사 중심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문화를 재미를 기준으로 소개하는 문화적 흥미 프레이밍이 가장 많고, 사회적 영향력 프레이밍과 비교/경쟁/협력 프레이밍도 점차 비중을 높여가며, 특히 인민일보에서 사회적 영향력 프레이밍 기사가 많아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유세경·이석·정지인(2012)의 연구 역시 중국 일간지에 보도된 한류관련 기사 프레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신문은 한류 관련 이벤트나 드라마, 영화의 열풍, 한류스타의 인기 등 특정 이슈에 따라 연도별로 기사 게재 건수에 큰

3) 수교 이전과 수교 이후의 중국언론의 한국관련 보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바람. 최윤규, 최용준. 2013. 중국 3대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 사회 21(2), pp. 119-159.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기사구성방식에서도 세 일간지 모두 한류 현상을 심층분석하고, 해석하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다 단편적인 한류 현상이나 인물 정보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류 보도에 사용된 구체적 프레임을 보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라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한류를 설명한 경제프레임과 중국 정부의 시점에서 바라본 정책 프레임 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뉴스내용의 틀은 일간지의 발행목적에 영향을 받는듯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보도하는 정책 프레임을 많이 다루고, 인민일보(해외판)은 대외적인 시각에서 경제 프레임을 많이 다루었고, 상업지 성격이 강한 경화일보는 문화현상으로 다루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일간지에 보도된 한류 관련 기사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프레임의 뉴스가 많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문화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의 관점, 한·중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영향을 받는 수용자들이 어떻게 영향 받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다. 중국 내 일반 수용자, 정책 입안자, 방송종사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국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달리 중국에서 프레임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언론프레임 연구 수준은 개념에 대한 모호한 인식에 머물러 있고, 연결사고가 부족하며, 결국 단순한 응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프레임 연구는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王玲寧 2009).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과 응용을 전제로 하는 프레임링이 근본적으로 쉽지않은 현실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중국학자 류바오첸(劉寶全 2014)은 한·중 양국의 소프트파워의 갈등양상으로 한류와 반한류 현상을 지적한다. 한류의 중국 전파과정을 살펴보면, 한·중 양국의 문화적 친근감, 한국 국가적 문화수출모델, 스타효과 등의 원인 이외에 한류 및 한국 문화산업발전의 내부 원동력이 한류의 강력한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류가 중국에서 성장-정체-재성장의 전파과정을 거치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류는 한·중 사이의 정치, 경제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반한류’현상은 한·중 양국의 이데올로기 충돌의 결과이기도 하고, 양국의 경제이익과 국가 소프트파워가 경쟁하는 현상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즉 한·중 양국은 문화산업영역에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가 한류 전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불법어선 단속에 나섰던 한국 해경의 사망보도에 관한 뉴스프레임을 분석한 “중국과 한국 인터넷 언론의 '한국해

경사건' 보도 비교 연구”(Zhenhui 2012)에서 한국과 중국 미디어는 이기주의적,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양국 매체는 '해경 사망'이라는 갈등적 이슈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주로 양국의 사후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슈의 본질보다는 갈등을 부각시켜 수용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전파가 훨씬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정리되었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전파되고, 온라인 미디어의 다양한 보도로 인해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 분쟁으로 쉽게 번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성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되는 군사안보적 이슈를 분석한 “한·중관계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연구 : 친안함, 연평도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중심으로”(소영 2012, 50)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면에서 정치와 안보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두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 간에 인식상의 차이와 기대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프레임으로 고정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중 양국 언론의 뉴스보도 행태에 대해 사례 연구를 보면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적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 사건은 제3국에서 중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대한 미디어의 해석이 독자들의 반한 정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프레임링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이란 언론이 뉴스를 제작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치를 가진 이슈(issue)를 선별하고 선택된 이슈의 특정한 일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강화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언론의 의도대로 이슈를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구성된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 분쟁 보도에서의 프레임을 분석한 양정혜(2001, 285)는 “뉴스 프레임의 개념에서 미디어 프레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디어의 틀짓기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남식(2004, 59)은 뉴스 프레임이란 “언론이 자신의 의도대로 수용자가 뉴스를 이해하도록 다양한 언어적 시각적 상징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돌출하고 포장하고 배치하는 것”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작과 전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의미하는 프레임의 개념은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 및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프레임이란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한 고프만(Goffman 1974)은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을 의미”하는 수준이라고 보았고, 민스키(Minsky 1975)는 다양

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구조로 정의함으로써 프레임을 담론적 의미를 내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시켰으며, 그 다음에는 의미를 전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심적 아이디어로 정의했다.

프레임을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평가받는 넬슨, 클로슨, 옥슬리(Nelson, Clawson, Oxley, 1997-참고문헌에 없음)는 “특정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사안과 연계된 많은 사실들 중 하나를 끌어내어 주제로 정의하고 그와 의도적으로 연계시킨 일련의 관심거리들을 정리해 내는 과정”이라고 정리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이슈나 논쟁거리를 정의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먼과 제노스(Simon & Xenos 2000)는 특정메세지를 프레임한다는 발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 중 특정 내용들의 조합을 포함시키게 된다는 의미에서 프레임에 조합이라는 개념을 연계시켜 설명하였다.⁴⁾ 용어 정의는 다양하지만, ‘틀 짓기’로 간단히 의미부여할 수 있는 프레임이론은 여론이나 투표행태분석과 같은 비교정치학분야의 연구나 인지학과 같은 사회심리학 분야, 그리고 사회학의 계층, 성, 인종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Entman 1993, 56).

프레임은 어떤 사건과 이슈의 특정부분이 강조되어 전달될 때 일어나는 미디어

어, 미디어 전문가, 수용자간의 이행방식을 의미한다(리스 저, 반현·노보경 역 2007, 31) 프레임 또는 프레임이란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를 특정한 의미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논쟁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사안의 성격을 규정짓거나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측면만을 선택,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사의 게재면수나 큐시트의 조정, 특정내용이나 화상이 반복하여 보도되는 경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특정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준거로 많은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들 중에서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정보가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

결국 프레임이란 모든 들어오는 정보를 가장 어울리는 카테고리에 배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카테고리에 의거해 정보를 해석하고 사용하며 또 저장하도록 하는 도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프레임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해석방식에 의거하여 사건을 인식하고 추이를 분석하면서도 그와 다른 방향의 해석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한 최초 정보와 진행과정에서 계속 전달되는 정보를 뉴스사용자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틀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Entman 1991, 7).

뉴스에서 다루는 기사거리들은 단독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특정한 이미지와 캐치프레이즈, 은유들을 담은 패키지 내지는 애기더미(clusters)속에 묻혀 함께 보도됨으로써 그 애기더미 안에 담긴 프레임의

4) 프레임이론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적 개념 및 의미에 대해서는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제29호. 85~86; 김용호·김현중. 2003. “한미관계에 대한 미디어의 프레임 연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권 2호. 127-128. 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로 보는 사람들을 몰아넣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애기더미들은 문화적으로 친숙한 상징이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여 연설했다는 관련 보도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유화적인 반응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수용자(독자)가 어렵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s)에 맞춰 프레임을 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연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이 상승하였고, 외교 분야에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프레임은 수용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사건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레임은 보도과정에서 특정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에 대한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면 다른 측면은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언론의 힘을 가장 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Lawrence 2000, 93).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험한류 사건에 대한 매체 보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미 보도된 뉴스 텍스트의 형식과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정보원을 분석하기로 하고, 분석 대상인 '성화봉송 충돌사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연구할 것이다.

첫째, 사건 보도에서 한·중 언론은 어떤 정보원을 사용했으며, 얼마나 사용했는가?

둘째, 사건 보도에서 형식적 측면에서의 한·중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셋째, 사건 보도에서 내용적 측면에서의 한·중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 보도와 관련된 기사에 이용된 정보원은 정부부처, 전문가, 검찰/경찰, 시민, 언론 총 5가지 정보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분석에서는 먼저 한국과 중국 양국 언론이 성화봉송 충돌 사건 보도에서 어떤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였는지 파악하고, 양국 언론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언론이 뉴스의 세 가지 주요 보도형식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과 관련해서 '주제 진술적', '일화 중심적', '혼합' 중 어떤 형식에 중점을 두었는지 분석하고,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일보와 중국 환구시보의 기사내용 분석결과 도출된 프레임들 중 최종적으로 도출된 5개 프레임, 즉 갈등 프레임, 대책 프레임, 국가위신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설명프레임을 설명하고, 양국 언론은 성화봉송 충돌 사건 보도에서 어떤 프레임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자미디어인 인터넷 신문기사로 설정하였다. 스마트시대인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도 내용은 오프라인 보도와 마찬가지로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정보습득과 전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중국의 여러 미

디어 중 민족주의 성향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정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국가이익을 앞세우며 보수적 색채를 띠는 ‘조선일보’를 선정하여 두 신문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환구시보는 당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중국의 입장 분석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선택대상 언론으로서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보다 보다 강경한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 조선일보는 한국의 주류 보수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수우파적 성향을 띠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중 양국의 주요 언론의 ‘반한정서’ 관련사건 보도를 프레임 구성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사는 2008년 4월 27일부터 2008년 6월 15일까지 약 1개월 이상에 걸쳐 ‘조선닷컴(<http://www.chosun.com/>)’과 ‘환구망(<http://www.huanqiu.com/>)’ 2개의 신문 사이트에 보도된 한·중 성화봉송 충돌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재인용 되어 90%이상 내용이 동일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한국 조선일보와 중국 환구시보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성화봉송 충돌’, ‘서울 성화봉송 충

5)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거시적, 중립적 입장에서 온건한 보도기조를 하는 것에 비해,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의 이익을 앞세워 직접적, 강경한 보도 색채를 띤다. 환구시보가 때로는 무례한 표현을 하는 등 튀는 보도를 하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느슨해진 언론통제, 상업성 추구, 정부의 암묵적인 보도지침 등이 원인이다(유상철, 2011, “중국 환구시보 정치학”, 『관훈저널』 봄호, pp. 179-185).

돌’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니 각각 14건으로 동일하게 수집되었다.

<표 1> 기사 건수
(단위: 건)

신문기사	조선일보	환구시보
기사 건수	14	14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대부분의 프레임을 광의적으로 분류하면 갈등 측면, 책임소재, 인간적 측면, 경제적 결과, 도덕성 측면의 다섯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 사건’을 둘러싼 한·중 양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한 프레임 설정을 위하여 ‘책임소재’, ‘인간적 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제외하고, 대신에 ‘대책 프레임’, ‘국가위신 프레임’, ‘설명프레임’을 추가하여 총 5가지 프레임으로 재해석하였다.

<표 2> 내용적 프레임

구분	내용
갈등 프레임	사건관련 집단 간의 대립 및 갈등
정부대책 프레임	성화 봉송 충돌 사건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응 여부와 위기 해소 노력 보도
국가위신 프레임	양국간 관계에서 국가위신의 회복을 주장한 기사
도덕성 프레임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보도
설명 프레임	양국 관계에 대한 배경설명

Ⅲ. 반한정서의 출현과 반한보도의 특징

1. 반한정서의 출현

시기적으로 중국의 반한류는 2005년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중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상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이 한류의 유행에 반발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한 현상이다. 그런데 2008년 후반 이후부터는 '반한정서'라는 새로운 용어가 한·중 양국 언론 매체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본래 반한정서 혹은 '반한감정'이라는 단어는 중국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중국 언론이 인용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쟁점화된 단오절 기원 논쟁, 아리랑 민요, 한복 등 문화유산 문제는 한·중 간 민간의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태도와 감정을 당시에는 '반한감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점차 중국 사회, 특히 인터넷 상에서 자주 표출되는 현상이 되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르러 올림픽 성화 봉송 충돌 사건 및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누설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중국 내 반한감정은 위험수위”라는 기사를 통해 ‘반한 감정’을 중국내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표현하였다.⁶⁾ 즉 한·중사이의 일련의 사건

6) "양궁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가 시위를 당길

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한국 언론이 ‘반한감정’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내 반한감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중국 언론이 한국언론을 인용보도하면서 ‘반한감정’이라는 단어도 동시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만 2009, 35) 이후는 ‘반한감정’이라는 말은 중국 언론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한감정’이란 주로 한국에 대한 불신, 반감, 싫은 느낌과 태도,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기반한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에는 한류상품에 대한 거부와 같이 소위 말하는 ‘반한류’의 개념도 포함된다.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문제, 앞서 언급한 단오절과 같은 문화유산문제 등에서 기원한 민간의 반한감정 형성은 장기적으로 축적된 과정의 결과로서 최근 10년 동안의 한류 열풍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한류에 대한 불만이 일정 정도에 이르자 폭발하게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던 2008년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한감정의 형성원인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반한류’와 ‘반한감정’이라는 두 개념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래 반한류 현상의 형성원인은 주로 문화 글로벌화와 문화제국주의 그리고 자국 문화 산업에 대한 보호심리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역사문제, 문화유산 문제 등에서 비롯된 일반인들의

때 중국 관중들이 휘파람을 불며 경기를 방해한 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한일 야구 예선 때 일본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중국 관중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놀랐다.” <중앙일보>, “중국 내 반한감정은 위험수위”, 2008년 8월 26일.

반한감정은 반한류 현상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져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대중적으로 유포, 확산되면서 ‘반한감정’과 ‘반한류’는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반한류와 반한감정의 연관성 존재는 한국 학자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강내영(2008)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중국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항한류’ 즉 한류에 저항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이고, 둘째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역사문제와 문화갈등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반한류나 반한감정은 모두 ‘반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 또는 한국과 관련된 많은 점들을 배척한다는 것이 이러한 흐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한·중 양국 언론 매체 보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앞서 언급한 2008년 올림픽 성화봉송 사건 및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누설 사건 등은 잠재되어 있던 중국 네티즌들 사이의 한국에 대한 불만감을 폭발시켰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 블로그나 각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그러한 불만감을 표현했다.

중국 언론의 반한 감정에 대한 보도는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를 축적시킬 수 있다. 잘못된 여론 형성은 일반 여론을 중시하는 중국 고위 정치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그릇된 보도를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

처할 필요성이 있다.

2. 반한보도의 특징

중국은 정치, 외교적 입장이 중국 언론의 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특정 국가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국과 관련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 혹은 공식 입장에 따라 적절하게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김도연·반정홍(2005)은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보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중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보도 논조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교 이후 질적, 양적으로 광범위하게 호전되었음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자, 중국 언론의 반한감정에 관한 보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즉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반한감정에 관한 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 4월27일 한국에서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 중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시민들 간의 충돌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7월 29일 한국 SBS의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제의 일단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기대감과 흥미를 반감시켰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이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바이두(baidu.com)’와 ‘구글(google.com)’에서 반한감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면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바이두 36회, 구글 31회로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이고 있다.⁷⁾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중국 내에서 소위 ‘반한감정’이 격화되고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언론의 부정적, 비판적 보도 즉 반한보도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다.

<표 3> 올림픽 전후 ‘반한감정’관련 기사의 분포

(단위: 건)

연도 포털	2008년 1-3월	2008년 4-6월	2008년 7-9월	2008년 10-12월	2009년 1-3월	총계
Baidu	1	4	36	12	9	62
Google	0	16	31	7	11	65

IV. 한·중 주요 언론의 프레임 사례 분석

1. 형식적 프레임 분석

우선 베이징 성화봉송 충돌사건 관련

7) 본 논문에서 인터넷 자료 수집 및 분석 시 이용한 포털사이트들인 '바이두(www.baidu.com)'와 '구글(www.google.com)'은 <2008년 중국 검색 엔진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65.8%와 22.0%의 비율로 중국 검색 엔진 시장 자리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가 어떤 형식으로 보도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화봉송 충돌사건에 관한 뉴스보도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환구시보 모두 일화 중심적인 즉, 사건중심적 프레임이 각각 57.1%, 71.4%로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기사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사건 중심적 혹은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현장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인과 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유세경·이석·정지인 2012, 215). 한·중 두 언론은 성화봉송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또한 외신 보도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형식적 프레임 분석

(단위: 건(%))

프레임 \ 신문	조선일보	환구시보
주제 중심적	3(21.4)	2(14.3)
일화 중심적	8(57.1)	10(71.4)
혼합	3(21.4)	2(14.3)
계	14(100.0)	14(100.0)

한편 조선일보와 환구시보의 기본적인 보도유형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언론

은 분량이 짧은 뉴스기사 성격의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articles)가 16건으로 57.1% 분포를 보이면서 가장 많았는데, 조선일보가 7건 50.0%, 환구시보가 9건 64.3% 였다. 사설(leading articles)이 8건, 28.6%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조선일보 5건으로 35.7%, 환구시보는 3건으로 21.4%였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다는 점은 사건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신문사의 견해를 주관적으로 피력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간 이해 혹은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많은 국제뉴스 보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보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5> 기사유형 (단위: 건(%))

신문 기사 유형	조선일보	환구시보	계
	스트레이트 기사	7(50.0)	9(64.3)
사설	5(35.7)	3(21.4)	8(28.6)
해설/설명/분석	0(0.0)	1(7.1)	1(3.6)
칼럼	1(7.1)	0(0.0)	1(3.6)
피처 기사	1(7.1)	1(7.1)	2(7.1)
계	14(100.0)	14(100.0)	28(100.0)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 보도와 관련된 기사에 이용된 정보원은 정부부문, 전문가, 검찰/경찰, 시민, 언론으로 압축되었고, 조선일보는 총 24개, 환구

시보는 총 50개로 환구시보가 조선일보보다 약 2배정도 많은 정보원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환구시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정보원은 정부부문과 언론이었고, 조선일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정부부문이 각각 29.2%, 외국 언론이 20.8%로 많이 이용되었고, 환구시보에서는 한국 정부부문이 28.0%, 한국 검찰/경찰이 20.0%로 많이 이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중국, 기타국가의 정부부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과 외국언론의 기사들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았고,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의 정부부문, 검찰/경찰,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기사들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았다.

<표 6>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충돌사건 관련 기사에 인용된 정보원 (단위: 개(%))

구분	조선일보			환구시보			계
	한국	중국	기타 국가	한국	중국	기타 국가	
정부부문	7(29.2)	5(20.8)	3(12.5)	14(28.0)	6(12.0)	0(0.0)	35(47.3)
전문가	0(0.0)	0(0.0)	0(0.0)	1(2.0)	2(4.0)	0(0.0)	3(4.1)
검찰/경찰	1(4.2)	0(0.0)	0(0.0)	10(20.0)	0(0.0)	0(0.0)	11(14.9)
시민	1(4.2)	0(0.0)	0(0.0)	0(0.0)	0(0.0)	0(0.0)	1(1.4)
언론	2(8.3)	0(0.0)	5(20.8)	8(16.0)	6(12.0)	3(6.0)	24(32.4)
계	24(100.0)			50(100.0)			74(100.0)

2. 내용적 프레임 분석

한국 조선일보와 중국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한·중 언론이 성화봉송 충돌사건 보도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내용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갈등, 정부대책, 국가위신, 도덕성, 설명 프레임 등 5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화 판별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키워드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키워드는 보통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이 글에서는 개별 뉴스 보도에서 한 개 이상의 키워드가 발견되는 경우 문맥과 기사 내에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혹은 문단의 양을 바탕으로 프레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표 7)은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충돌사건 보도에서 나타난 갈등 프레임, 대책 프레임, 국가위신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설명프레임 등 5개 프레임의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표 7> 내용적 프레임 유형

구분	내용
갈등프레임	사건관련 집단 간의 대립 및 갈등
양국 정부 대책프레임	성화 봉송 충돌 사건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응 여부 위기 인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보도 여부
국가위신프레임	양국간 관계에서 국가위신의 회복을 주장한 기사들
도덕성 프레임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보도
설명프레임	양국 관계에 대한 배경설명

표8)과 표9)에서 5개의 프레임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총 40개, 환구시보는 총 39개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대책 프레임과 갈등프레임이 각각 42.5%, 22.5%로 가장 많았고, 환구시보도 역시 대책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이 각각 41.0%, 35.9%로 가장 많았다.

<표 8> 내용적 프레임 분석-조선일보

(단위: 개(%))

내용 프레임	조선일보		
	한국	중국	계
갈등 프레임	1(2.5)	8(20.0)	9(22.5)
대책 프레임	10(25.0)	7(17.5)	17(42.5)
국가위신 프레임	4(10.0)	1(2.5)	5(12.5)
도덕성 프레임	0(0.0)	5(12.5)	5(12.5)
설명 프레임	4(10.0)		4(10.0)
계	40(100.0)		

<표 9> 내용적 프레임 분석-환구시보

(단위: 개(%))

내용 프레임	환구시보		
	한국	중국	계
갈등 프레임	7(17.9)	7(17.9)	14(35.9)
대책 프레임	15(38.5)	1(2.6)	16(41.0)
국가위신 프레임	4(10.3)	1(2.6)	5(12.8)
도덕성 프레임	0(0.0)	2(5.1)	2(5.1)
설명 프레임	2(5.1)		2(5.1)
계	39(100.0)		

대책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와 환구시보 양측 모두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책 및 대응을 중국의 대책 및 대응보다 더 많이 보도하였으나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책을 1회 언급함으로써 객관적인 보도량이 극히 적었다. 폭력사태에 대해 중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재국 정부와 현지 일부 중국인들의 문제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배어있다.

갈등 프레임에서는 환구시보가 조선일보에 비해 갈등 프레임이 약 6%정도 더 많았고, 조선일보는 갈등을 야기한 주체가 중국유학생 혹은 화교(이하 '중국측')인 내용의 프레임이 20.0%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하 '한국측')이 갈등의 주체가 된 내용의 프레임(2.5%)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일보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폭력을 일으킨 당사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논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환구시보는 한국측과 중국측 양쪽을 각각 17.9%로 동일하게 갈등의 주체로 보았다. 충돌에 따른 문제 확대를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국가위신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와 환구시보 모두 한국의 국가위신에 대한 내용이 중국의 국가위신에 대한 내용보다 많았다. 이는 사건발생장소가 한국의 서울이었다는 점에서 양 언론기관의 보도프레임이 일치하였다. 도덕성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와 환구시보 모두 중국의 도덕성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으나 조선일보에서 충돌사건을 일으킨 유발자가 중국인이었기에 모국인 중국의 도덕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환구시보가 각각 10.0%, 5.1%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한·중 미디어 프레임을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통해 분석하면 한·중 언론은 자국 중심적 시각에 따라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갈등프레임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한국측이 갈등을 야기했다는 내용이 단 1건에 불과했으나 환구시보는 7건이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사건의 갈등을 중국측의 물리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환구시보는 이 사건이 갑작스레 발생한 충돌이 아니라, 한국측이 성화봉송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보도를 분석하면 조선일보는 '중국인 시위대, 한국인과 외국인, 경찰과 취재기자를 폭행', '중국인 시위대 돌멩이, 쇠파이프, 금속절단기로 무차별 몰매', '종이컵과 돌멩이를 던지기도', '사진기자도 각목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등 중국측의 물리적 폭력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내용이 많았다. 반면에 환구시보는 '한국시위대 또한 반격', '어느 측이 던진지 모르는 물건에 사람이 맞아', '상대방이 우리(중국 시위대)에게 나무막대기를 던졌기 때문에, 물병을 던진 것이라는' 등 한국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이라는 식의 보도 프레임을 설정하면서, 중국의 반한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의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V. 결론

본 논문은 중국 내 반한류 현상과 반한감정의 부상기에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인 베이징 올림픽 성

화봉송 충돌사건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민족주의 정서가 언론의 프레임 효과 생성 매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보도매체인 조선일보와 환구시보는 기사유형과 형식적 프레임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에서 조선일보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정부 및 미국, 영국과 같은 외신 언론의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보도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였고, 환구시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국인 우리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주로 인용하면서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는 자세와 더불어 주변국을 의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다섯 가지 프레임 중 갈등프레임, 대책프레임, 국가위신프레임, 도덕성프레임에서는 한·중 양국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갈등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심각성, 갈등 주체인 중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였고, 환구시보는 갈등이 야기된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하면서 갈등을 그로 인해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맺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갈등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그 시각에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여주는 렌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문제의 경우 언론의 지나치게 왜곡된 보도는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환구시보에서는 성화봉송 충돌사건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을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도는 사건이 감정적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고 국가의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론형성과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주요 언론의 사명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언론은 여론형성과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프레임링 효과를 통해 여론의 방향과 구독자의 행위에 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민족주의 정서는 왜곡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국 중심적 보도를 지양하고,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태도를 지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 금창호·김병국·한부영·조석주·권오철. 200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양승목. 2008. “미디어와 사회적 현실.” 김광익 편.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 사회과학의 이해』.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강내영. 2008. “중국의 항(抗)한류현상연구: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3집, pp. 457-508.
- 김범송. 2008. “중국의 한류 열풍과 험한류 현상에 대한 담론: 한·중 언론의 한류 견해와 주장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5집, pp. 337-361.
- 양카이·정정주. 2015. “중국 언론의 한류 보도 프레임 연구: 2009년-2014년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신민만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권 2호, pp. 412-442.
- 유세경·이석·정지인. 2012. “중국 일간지의 ‘한류’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2001-2010년 기간에 보도된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pp. 202-226.
- 윤경우. 2006. “중국의 ‘한류’ 수용과 지향: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3호, pp. 41-71.
- 이은숙. 2002. “중국에서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제3권 2호, pp. 31-59.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제29호, pp. 85-153.
- 주정민. 2013.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한류’ 현상의 원인과 대응.”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2호, pp. 137-160.
- 최수진. 2014.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 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2), pp. 505-532.
- 스티븐 D. 리스 저. 반현·노보경 역. 2007. 『프레이밍과 공공생활: 미디어와 사회현실의 이해』. 경기: 한울아카데미.
- 劉寶全. 2014. “韓流在中國的傳播及其對中韓關係的影響.” 『當代韓國』 1期.
- 王玲寧. 2009. “國內新聞框架研究現狀述評.” 『中州學刊』 6期.

References

- Entman, Robert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4): 6-27.
- .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4): 51-58.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Minsky, Marvin. 1975. "A Framework for Representing Knowledge." In *The Psychology of Computer Vision*, edited by Patrick Henry Winston, 211-277. New York: McGraw-Hill.
- Nelson, Thomas E., Zoe M. Oxley and Rosalee A. Clawson. 1997. "Toward a Psychology of Framing Effects." *Political Behavior* 19 (3): 221-246.
- Simon, Adam and Michael Xenos. 2000. "Media Framing and Effective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 (4): 366-367.

국·중문 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 Chinese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i Su-Jin. 2014. "Frame and Affective Tone of Hallyu News Reports by the U. S. and China after Psy's 'Gangnam Sty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8 (2): 505-532.
- Geum Chang-Ho et al. 2001. "A Study of the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Jin Fan-Song. 2008. "Hanryu as a Megatrend and its Anti-Discourse: Contentious Points of Chinese and Korean Journalism." *Korea-China Humanities Research* 25.
- Joo Chung-Min. 2013. "Analysis of Causes behind the 'Anti-Korean Wave' Phenomenon against the Korean Wave Content and Their Countermeasures, with a Focus on China and Japan." *Diaspora Studies* 7 (2).
- Kang Nae-Young. 2008. "A Study the anti-Hallyu Phenomenon in China: Focusing on the Drama and Film." *Chinese Studies* 43: 457-508.
- Lee Eun-Sook. 2002. "A Study of the Popular 'Korean Wave' in China." *Literature and Film*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3 (2).
- Lee Jun-Ung. 2000. "Frame,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Effect." *Media and Society* 29.
- Liu Quanbao. 2014. "Hanliu Transmission in China and Its Influence on Sino-ROK Relations." *Contemporary Korea* 1.
- Reese, Stephen D., Oscar H. Gandy, Jr., and August E. Grant, eds. 2007.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translated from same titl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Gyunggi: Hanul Academy.
- Wang Lingning. 2009. "Review of Chinese News Framework Studies." *Zhonghoushixue* 6.
- Yang Kai and Chung Chung-Joo. 2015. "An Analysis of the New Korean Wave News Coverage of Chinese Media: Focusing on the *People's Daily*, *China Youth Daily*, and *Xinmin Evening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Korean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 15 (2): 412-442.
- Yang Seung-Mok. 2008. "Media and Social Reality." In *Social Sciences: Understanding and Making the World*, edited by

Kim Kwang-euk.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Yu Sae-Kyung, Lee Suk, and Chung Ji-in. 2012. "Analysis of the 'Korean Wave' News Frame of Chinese Daily Newspapers, Based on Reportage between 2001 and 2010."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57 (2): 202-226.

Yun Gyong-Woo. 2006. "Korean-Wave, anti-Korean Wav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China." *Korean and International Politics* 22 (3).